

6월호
월간규문

핫이슈 Hot Issue

①이브EVE 뉴시즌 전격 인터뷰(채운, 태람, 영은)
②절차탁마 푸코 3학기 에세이 풍경(by 수경)

소셜 읽는 수경

모니카 마론, 『슬픈 짐승』

元-의 푸리

라디오 헤드의 〈KID A〉

공부한다면 이틀처럼

맑스(by 제리)

태람이의 파종

루쉰, 『화개집』

이달의 선물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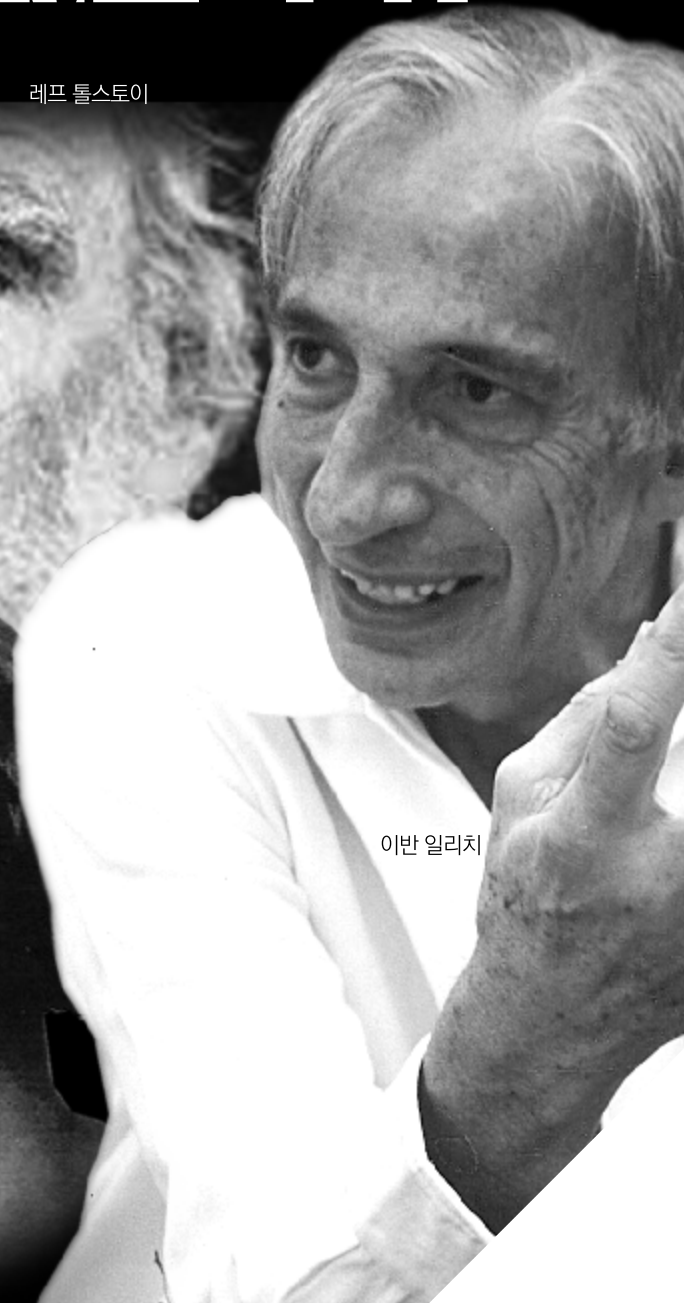
레프 톨스토이



마하트마 K. 간디



시몬 베유



이반 일리치

별 생각 없이 부모 세대를 착취하는 20대들이여!
공무원 시험이 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는 30대들이여!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인생 다 이렇게 사는 거라며 체념하고 있는 40대들이여!
이렇게 외쳐라,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태람: 이브 new 시즌 개강에 앞서, 먼저 지난 시즌에 배웠던 “신화와 종교의 역사”를 떠올려볼까요 ~ ~ 우리가 읽었던 나카자와 신이치, 캠벨, 엘리아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저는 엘리아데의 <세계종교사> 1~3권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방대한 분량도 분량이지만, 책을 읽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테니 우리를 대한민국 상위 1%로 만들어준 책이었죠. ^^ ㅎㅎ

영은: 저는 신이치의 날카로운 한 문장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마음의 구조는 반드시 ‘초월성’의 영역과 접촉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쉽사리 완전한 ‘무신론’에 처할 수 없다.” 이 말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인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헉! 신화와 종교는 그저 허구적 이야기, 유일자, 초월자, 고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한 문장이 저의 편견을 와장창 깨버렸죠. 신화와 종교는 허황된 게 아니라, 가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하는 와중에 나온 거였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신이치의 책을 그때 처음 읽은 게 아니라는 사실! 예전에는 뭘 읽었던 건지, 그때 제가 보지 못했던 게 많았다는 거죠. 아무튼 지난 학기의 충격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네요. ^^

채운: 나카자와 신이치는 신화와 종교를 현재의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대안적 사유로 끌어온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죠. 저는 신화와 종교가 현실적으로 사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어요. 자본주의적 인간형을 벗어날 수 있는 잠재성을 확인시켜줬달까... 특히 신이치는 그런 사유를 불교에서 찾고 있죠. 캠벨은 신화의 세계에 대한 신화가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실망스러웠고, 엘리아데는 ‘종교성’의 본질을 풀어냈죠. 엘리아데의 말대로라면 인간은 언제나 ‘종교적 인간’이었다는 건데, 현대 인간은 속(俗)의 세계를 전부로 알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상에서 성(聖)의 세계를 회복한다는 건 뭐고,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종교적 태도를 갖는다는 게 뭔지, 엘리아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나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태람: 신이치가 말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능력도 그렇고, 엘리아데가 말하는 ‘종교적 인간’도 결국 인간에게 자신의 개체성을 뛰어넘으려는 본성이 잠재해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도 어쩌면 자기를 뛰어넘고 싶다는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채운: 사이비 종교의 문제점은 현실과의 접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현실과 접촉되지 못하면 분열증에 걸린 인간처럼 삶을 걸돌게 돼요. 세계와의 합일, 개체로부터의 탈주, 공감과 자비의 욕망은 단지 개체를 넘어서는 차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다른 관계를 구성할 수 있을 때라야 유의미한 거죠. 그런 삶의 가능성을 보여준 인물들을 이번 이브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태람: 이번 시즌 커리큘럼을 보면, 이름은 익숙한데 막상 잘 모르겠는 인물들이 많아요. 소로우, 간디, 톨스토이가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책 한 두 권쯤은 다 갖고 있을 걸요. 시몬 베유만 좀 생소하네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영은: 맞아요.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막상 책을 읽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또 그런 책들이 좀 멍멍하게 읽히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예컨대 소로우는 도시를 떠나 자연 친화적 삶을 산 사람으로 유명하죠.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낭만적으로 사는 삶 ~ ~ 소로우가 무엇을 사유했는지 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웰빙적 삶’에 대한 표상을 그에게 덮어 씌워버린 거죠.

태람: 소로우 외에도 일리치, 간디, 톨스토이, 시몬 베유, 김종철 선생의 책을 읽을 예정입니다. 그것들을 고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채운: 말했다시피, 그들의 삶 자체가 종교적이랄까... 현실 속에서 가장 혁명적인 방식으로 종교성을 구현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싶었어요. 신실한 삶, 종교적 삶을 교회나 절에 나가는 걸 기준으로 얘기할 순 없어요. 정말 종교적인 삶을 사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반국가적이고 무소유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리치부터 간디까지 모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컨대 이반 일리치는 사제였지만 제도화된 종교, 나아가 제도화된 모든 것들과 싸웠죠. 시몬 베유도 신적인 말씀에 충실하다보니 노동자들의 삶, 세계의 어둠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싶고... 소로우가 월든 숲 속으로 들어간 것은 자연친화적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해서였죠. 암튼,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다른 욕망', '다른 삶의 양식'을 구체적으로 사유해보자는 게 이번 시즌의 목표!

태람: 예전에 소로우나 일리치의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이렇게 간명하면서 강렬한 울림을 주는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채운: 소로우는 월든 숲에서 산책, 노동, 글쓰기를 하면서 살았어요. 먹는 만큼 글 쓰고, 걷는 만큼 글 쓰면서. 그가 간명하면서 강렬한 글을 쓸 수 있었던 건 삶 자체가 너무도 간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무소유의 삶이란 것도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노예가 되라고 강요하는 세계와의 불화를 내포하죠. 그렇게 투쟁하면서 살았으니 삶에 근육이 붙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 글이 강렬할 수밖에 없지요. 일리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배워야 하는 게 그런 점이라고 생각해요. 철학적인 말로 현란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건 그들처럼 살고 쓰는 것이죠.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어떻게 써야 현실적이면서 강렬한 글을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번 시즌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에요.

영은: 그들의 소박한 삶과 불복종이 저의 삶에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몹시 기대가 됩니당~ ~ 특히 글쓰기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드네요!^^

이브 new 시즌에서 우리가 만날 멘토들을 소개합니다~~

- 이반 일리치(〈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외),
- 레프 톨스토이(〈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참회록〉),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월든〉, 〈시민의 불복종〉, 〈산책〉),
- 시몬 베유(〈중력과 은총〉, 〈뿌리내림〉),
- 마하트마 K. 간디(〈간디, 나의 교육철학〉),
- 김종철(〈간디의 물레〉)

이들의 간명하고도 강렬한 글쓰기가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되, 과감하게 자기 문제의식을 버려야!”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기억이 까마득합니다……. 절차탁마 3학기 에세이 발표가 지난 6월 4일 있었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병철, 정아, 수경, 추, 태람, 제리, 윤차장, 이렇게 총 일곱 명의 에세이를 순서대로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흐린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몇 개 장면과 문장들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오전 9시 30분 발표자들 속속 도착. 공용 컴퓨터와 복사기 주변은 만원. 대부분의 에세이들이 A4 10매 분량인 관계로 복사에도 적지 않은 시간 소요. 에세이 대신 떡을 한아름 안고 미영 쌤 등장. 에세이 발표 안 하면 안 되냐고 진지하게 묻는 정아.

오전 10시(에서 아마 30분가량 지난 시각) 김밥과 기름떡볶이, 떡을 싸아놓고 에세이 발표 시작. 두 명씩 묶어 발표하고 함께 이야기하기로. 첫 번째 타자는 막내인 병철과 정아. 우선 병철은 <‘잉여’의 신체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일베’ 등의 사이트를 방문하는 소위 ‘잉여 남성’이 인터넷을 비롯한 현실에서 어떤 권력의 배치를 통해 구성되고 출현하는지를 보고자 함. 애초 자신이 왜 이 문제에 꽃혔는지, 이 논의에서 그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키고 있는지(“일베 사이트에 너도 들어가면서 왜 그 사람들 이야기에서 널 쏙 빼지?”), 결국 자신이 어떤 태도로 공부하는지 등을 생각해야 할 때라는 평가. 요컨대 “너 자신을 봐야 할 때. 안 그러면 공부와 오히려 위험해진다.” 두 번째로 정아. <신체를 파고드는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미완의 에세이 제출. 개념 정리라고 봐준다 해도 푸코의 문장을 발췌하는 수준에 그침. 자신이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해당 개념을 이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지만 대진운(?)이 좋아 앞서 발표한 병철에 비해 전반적으로 덜 혹독한 분위기.

(아마도)오후 12시 두 명의 발표만으로 넉다운 돼 잠시 휴식 후, 먼저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수경과 추 발표.

먼저 수경이 <21세기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 - 소설 ‘화이트 노이즈’와 ‘코스모폴리스’에 드러난 근대 권력의 메커니즘> 발표. 제목에서 일단 NG. 제목은 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하면서도 색시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건 평소 내 주장이기도 하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는 때가 있음;

돈 드릴로의 작품 분석을 통해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21세기 권력 메커니즘을 볼 수 있었는데도 분석을 철저히 밀고 나가지 못했음. 개인적으로는 푸코의 방법론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꼈던 유익한 시간.

이어 장치 개념을 통해 푸코의 주체 개념을 사유하려 한 추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에세이 발표. 이번에도 제목에서 NG.

결국 우리 두 사람은 제목 때문에 벌금 1만원을 물었음. 장치 개념의 정리는 나름 성실하게 이루어졌으나, 뒤이어 주체 개념을 정리할 때는 앞선 장치 개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

유혜경 쌤이 지친 우리들에게 과일 공급해주심(감사드려요!)

(아마도)오후 3시 현옥쌤이 시원한 주스와 하드를 들고 나타나주심. 잠깐의 휴식 뒤 태람이 <파시즘, 근대 권력 기술의 잔혹한 발명품 - 푸코와

라이히의 권력 개념으로 본 파시즘>이라는 번듯한 제목의 에세이 발표. 여기서 태람이 게시판에 올린 후기를 좀 보자면… “에세이 발표하는 날, 날씨가 정말 화창했습니다. 비는 그치고, 공기는 청명했었죠. 특별 오늘의 운세에는 제가 어른에게 신임을 얻는다고 써있더군요.

그야말로 ‘운수좋은 날’이었지요. 하하하하(-.-) 크하하하하하!!!! (ㅠ.ㅠ)”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이의 심경을 이토록 명징하게 글로 표현할 수 있다니. 글의 도입이 이토록 매력적이면 그 다음을 안 볼 수가 없음. 하지만 에세이에서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비교하고자 하는 두 개념을 어떤 공통의 주제로 바라볼 것인가가 없이 죽 나열하기만.

이어서 제리의 <인간학의 잠을 깨울 지식, 투쟁하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학기에 미처 풀지 못한 권력과 지식에 대한 에세이 발표.

늘 그렇듯 스스로 궁금해 하는 것, 제대로 보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깔끔하게 정리. 채운쌤 왈, “딱 자기 식으로 했다.” 이어서 “들여다보려는 영역을 너무 확고하게 세워 놓고 막 정신없이 가다보니 개념 정리에 있어서도 비약이 생기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막 달려갔더니 정작 도착한 데서 ‘어라, 이게 아닌데?’하게 되는 거다.”

대망의 마지막 타자 윤차장, <저항, ‘나’를 거부할 자유 - 푸코의 권력 개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 푸코의 권력 개념을 그야말로 꼼꼼하고 매끈하게 잘 정리해주어 이번 학기 총복습된 고마운 시간. 하지만. 애초 그녀의 문제의식이 자신의 공부를 놓고서 이렇게 공부하는 삶이 저항할 수 없는가를 보는 것이었던 데 반해 에세이에서는 충실한 개념 정리 후 급작스럽게 말을 마침. 짜증나고 답답하다는 말로 끝난 에세이; 이에 대한 윤차장의 정확한 진단 “나는 지저분한 걸 못 견뎌요.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푸코 개념을 실제로 적용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씩씩하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도하다 곧 접고 시도하다 또 접고 자꾸 그러는 거지!”

저녁 7시 에세이 발표 끝! 다함께 중국집 ‘청우’로 향해 술과 요리 흡입. 몰랐는데 현옥쌤이 중간에 슬그머니 나가 모조리 계산해주심.(멋져요!)

그날을 회고하고 있는 현재 시점은 6월 23일… 내일 모레면 벌써 4학기 첫 번째 책을 마치게 됩니다. 눈 깜짝 할 사이 4학기가 끝나고 최종 에세이를 발표하는 날이 또 찾아오겠지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이번 학기 중당의 자세로 돌아가 전력투구해야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는 에세이 발표가 있을 예정! 철저한 예습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

元一의 푸리

작곡가 원일(현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의 음반 소개 코너



어떤 사람에게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음악(가)들이 있다. 듣는 순간 온 몸을 얼어붙게 만들고 형언키 힘든 미궁에 빠트리는 그런 음악들이. 라디오 헤드의 <KID A>를 처음 듣는 순간이 그랬다. 음악 장르로 구분하자면 <KID A>는 일렉트로닉스 앰비언트 록이다. 기타와 드럼 위주의 전형적인 록밴드 편성을 완전히 벗어난, 라디오 헤드의 정규 4집 음반이다. 솔직히 나는 이 앨범을 듣기 전까지 라디오헤드에게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2000년) 신해철이 진행하는 FM <음악도시>의 신보 소개 코너에서 흘러나오던 KID A를 듣고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다음날 바로 앨범을 구입해 듣고는 전혀 다른 사운드로 무장한 이 앨범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 <월간 규문>의 음악 소개 코너를 기쁜 마음으로 맡으며 나는 망설임 없이 이 앨범을 추천하기로 마음먹었다. 록밴드로서는 완전히 혁신적인 사운드를 담아냈다는 점은 물론, 모든 곡의 가사가 어찌도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에 딱 들어맞는지. (가사는 아래 따로 소개한다) 가사를 몰라도 사운드가 도발하는 새로움과 강인함만으로도 이 앨범은 충분한 걸작이다.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내가 되기 위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앨범을 추천한다.

Everything in its Right Place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In its right place
 In its right place
 In its right place
 Right place

Yesterday I woke up sucking a lemon
 Yesterday I woke up sucking a lemon
 Yesterday I woke up sucking a lemon
 Yesterday I woke up sucking a lemon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In its right place
 In its right place
 Right place

There are two colors in my head
 There are two colors in my head
 What was that you tried to say?
 What was that you tried to say?
 Tried to say
 Tried to say
 Tried to say
 Tried to say
 Tried to say
 Everything in its right place...(to end)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이제 그 본래의 자리로
 그네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라
 바로 그 자리에
 합당하게 귀속될 그 자리에

어제 나는 잠에서 깨어 레몬 한 개를 빨아 마셨다
 어제 나는 잠에서 깨어 레몬 한 개를 빨아 마셨다
 어제 나는 잠에서 깨어 레몬 한 개를 빨아 마셨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이제는 제자리로
 이제는 제자리로
 그들이 있어서
 가장 알맞을 그 자리로

내 머리 속엔 지금 두 가지의 상념이 떠도네
 지금 내 머리 속엔 두 가지 색깔의 생각들이 놓여있네
 당신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나?
 진정 당신이 이야기하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던 말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들려주고자 했던 것은
 말하려고 했던 것
 그 것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이제는 제 자리로 돌아가 영원히 안착하라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 복제'라는 논제에 대해 라디오헤드는 앨범의 서두부터 부정적인 입장으로 뼈기를 박는다. 라디오헤드의 음악으로서 다소 생경한 사운드를 담고 있는 이번 앨범의 음(音)적 정체성은 'Kid A에 대한 컨셉과 적절히 부합하는 훌륭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다소 성급한 결론도 내릴 수 있을 만큼 앨범 안에서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는 트랙이다.



KID A

I'm still awake
I slept a little while

We've got heads on sticks
You've got ventriloquists
We've got heads on sticks
You've got ventriloquists

Standing in the shadows at the end of my bed
Standing in the shadows at the end of my bed
Standing in the shadows at the end of my bed
Standing in the shadows at the end of my bed

Rats and children follow me out of town
Rats and children follow me out of their homes
Watch it

실수를 저질렀다.
그 거짓말에 난 말려들고 만 거야

우리는 머리가 좋았지
하지만 넌 복화술을 썼던 거였어
우리는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었지
하지만 너는 영악한 꾀로 우리에게 감언이설을 한 거야

이 도시의 변절자들이여, 마음 여린 이들이여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이 도시를 떠나자
이 체제의 불신자들이여, 순결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여
이제 그들의 자리에서 떠나, 나를 따르라
이제 해보는 거다

The National Anthem

Everyone
Everyone around you
Everyone will stop here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Everyone
Everyone will stop here
Everyone will stop the fear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국민 여러분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
모두 다 아주 닳아 있으시군요
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사시는 건가요?

국민 여러분
모든 분들 생김생김이 거의 비슷하시군요
모두 두려워하고 계시는군요
도대체 어떻게 되가는 거죠?
뭘 위해 사시는 건가요?
당신은 당신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어떻게들 되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도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되가고 있는 거죠?
누가 좀 대답이라고 해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되가는 거냐구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소설 읽는 수경

기억에 관한 무참한 이야기 - 모니카 마론, 『슬픈 짐승』

제목이 너무 감각적이라 선택이 머뭇거려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 이 작품도 그랬다. 현대 여성작가가 '슬픈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쓴 소설... 작품을 보지 않고도 '축'이 왔다. 표지를 봤더니 첼로 뒤에 누운 여인(남자 다리 같지는 않다)의 벗은 다리 사진이다. 역시 맘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뒷에 씌었는지 책을 주문했고 도착한 그날부터 읽기 시작했다. 결과는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문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라면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인간을 이해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 매력과도 같은 힘에 대해.

간단히 말해 이 작품은 짧은 사랑과 긴 기억에 관한 이야기다. 중년의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발작 이후 몇 가지의 장애를 겪기 시작한다.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까 스스로 묻고서 여자는 이렇게 답한다. "인생에서 놓쳐서 아쉬운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다. 남편과 다 자란 딸이 있는 그녀는 자신의 일터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에게 단번에 빠져들고, 이제 삶은 그와의 밀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간 남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발작 이래 다른 것들이 그랬듯 사랑의 기억조차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그녀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제 모든 걸 건다. 이 여자는 자신이 몇 살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백 살일지도 모르고 혹은 생각보다 아직 젊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렇게 나이가 먹는 내내 그 방 안에서 남자가 시트에 남긴 정액의 흔적을 들여다보고, 남자가 남긴 안경을 써 일부러 제 시력을 망가뜨리고, 자꾸만 바뀌는 그와의 대화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그린다. 이따금 생활비를 인출해 식료품을 살 때를 제외하고 그녀는 남자와 정사를 나눈 그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다. 발작은 하나의 징후였을지 모른다. 이를 통해 그녀는 삶의 균열을 감지하고, 그래서 불안해지며, 그런 만큼 생에 대해 보다 큰 갈증을 느낀다. 자신을 살아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죄수처럼 자기 내부에 갇혀 살던 "사랑이 해방되어 우리를 자신인 감옥을 부수고 나오는 데 성공"할 때뿐이라고 그녀는 단언한다. 해방된 사랑이 미쳐 날뛰니 자신은 기꺼이 그것의 식민지가 되어 그에 따른 행복과 불행은 만끽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하여 연인이 떠나고 나서도 그녀는 그 사랑을 끝내지 않는다. 그녀의 선택은 차라리 사랑에 대한 기나긴 애도였다. 이렇게 하여 한 마리 슬픈 짐승이 탄생했다. 스스로 유폐된 짐승, 사랑이 끝나고 그것을 애도하는 것밖에는 남은 게 없으며, 매우 기꺼이 이를 받아들인 짐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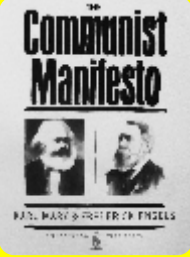
“이제 내가 깨어 있도록 붙잡아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간신히 몇 걸음을 옮겨 식육식물들 사이의 내 자리로 간다. 낯선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며 식물들의 잎새를 희롱한다. 이파리들 사이에 눈들이 반짝거린다. 여기저기에서 나를 지켜보는 눈들. 그것은 짐승들의 눈이다. 그들이 식육식물들 사이에 앉아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짐승들이 온다. 크고 작은 짐승들이 조용히 다른 짐승들 사이에 앉는다. 나는 그들 한가운데 누워 있고 그들이 무섭지 않다. 나는 그들 가운데 한 마리 짐승이다. 짐승인 나의 몸을 휘감는 긴 팔과 뭉툭한 코를 가진 갈색 털의 원숭이다. 그렇게 나는 누워 있다.”

글쎄... 나는 이런 종류의 인간이 싫다. 하나에 대한 열정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부셔뜨리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인간 말이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그녀가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모두 지켜본 덕에 이제 나는 안다. 그렇게 함으로써밖에 달리 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는 죽음으로 보이는 길을 택함으로써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역시 때때로 그렇게 버티지 않던가. 살아 있음에 대한 생생한 감각은 찰나에 왔다 사라지고, 그런 뒤 남은 시간을 버티기 위해 우리 모두는 애면글면 그 시간을 현재진행형으로 돌리고자 한다. 그러니 그녀가 좁은 방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 행하는 어떤 가치 판단도 무효하리라. 세상에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제 선택을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는 거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벽하게 멀어지고 잊힌 채 살아도 아무렇지 않은 여자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류의 프로그램에서는 그들을 끝까지 기이하고 흥미로운 종(種)으로 취급하는 데 그치지만, 적어도 소설은 그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덕분에 독자들 역시 이해라고 부를 만한 것 근처에 도달하고 마는 거다. 한 인간의 고통 어린 선택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문학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무언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한다. 그래서, 존재의 무참함을 무참함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힘이 소설에는 있다고, 또 이렇게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수경**



공부한다면 이들처럼 맑스

철학은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하는 것이다 / 제리



“그는 진짜 보헤미안 지식인 생활을 하고 있다. 씻고, 단장하고, 내의를 갈아입는 일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그는 술에 취하는 것도 좋아한다. 종종 며칠씩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지만, 할 일이 많을 때는 지칠 줄 모르고 밤낮없이 꾸준하게 일을 한다. 그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깨는 법이 없다. 밤새 한숨도 안자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그랬다가 대낮에 옷을 다 입은 채로 소파에 누워 저녁까지 잔다. 누가 왔다갔다 해도 전혀 방해 받지 않는다.”

지지자들에게는 희망의 이름, 비판자들에게는 두렵고 성가신 이름 칼 맑스(Karl Marx, 1818~1883). 맑스는 평생 직업을 가져 본 적 없는 전업 “백수”로서 일생을 마쳤다. 『자본론』을 집필할 때 경찰에 보고된 맑스의 동향은 한마디로 “뭐 하는지 모르지만 되게 바쁜 옆집 백수 아저씨”의 모습이었다. 의견이 다른 사람과는 욱설도 마다 않고 논쟁을 즐기고, 돈이 없으면 양복도 전당포에 맡길 정도로 돈 버는 능력은 “제로”인 맑스를 보면 그는 정말 평범한 인간 같다. 이런 모습의 맑스는 고귀한 성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철학자들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그는 마치 진흥당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남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갔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세계의 질서를 발견했다.

맑스는 인간의 역사가 이성의 힘에 의해 발전한다는 진보적 역사관에 의문을 던졌다. “이성에 의해 발전하는 역사가 도달한 현실의 모습이 비밀경찰과 어린이 노동과 빈부격차와 자연파괴인가?”, “인간에게 이성이 있다”가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진 맑스는 “이성을 가진 인간”을 해체하고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고 규정한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에 따라 만들어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활동성을 가진 존재였다. 실천적 존재이자 변혁 주체로서의 인간. 이제 철학이 해야 할 것은 연구실에서 인간 이성의 진보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왜 세계를 바꾸려는가? 지금 세상이 너무나 불평등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업백수인 맑스가 그 부침 많은 일생에서 꾸준히 한 것은 “공부”였다. 혁명운동이 실패하고 바다 건너 영국으로 잠입한 그는 대영박물관 도서관에 앉아서 시민사회를 해부할 정치경제학을 근본에서부터 공부해나간다. 미적분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검토하고, 실물경제에 대해 엥겔스와 토론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이윤이론”을 성립한다. 맑스는 혁명이 열정으로만 가능한 게 아님을 젊은 시절에 처절하게 경험했다. 하여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현실을 분석하게 되면 혁명이 도출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려고 했다. “혁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혁명일 수밖에 없다.” 부르주아의 시간은 끝장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철 지난 맑스라 할지라도, 자본주의자들도 “맑스는 틀렸다”고 결론 맺고, 자본주의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사람들도 나는 “맑스주의자가 아니다”라며 시작하는 걸 보면 맑스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다. 아마도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맑스의 이름은 계속 불려나올 것이다.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근저에서부터 분석한 사람이 바로 그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여전히 가진 자에게는 천국이고 못 가진 자에게는 지옥인 한 맑스는 유령처럼 떠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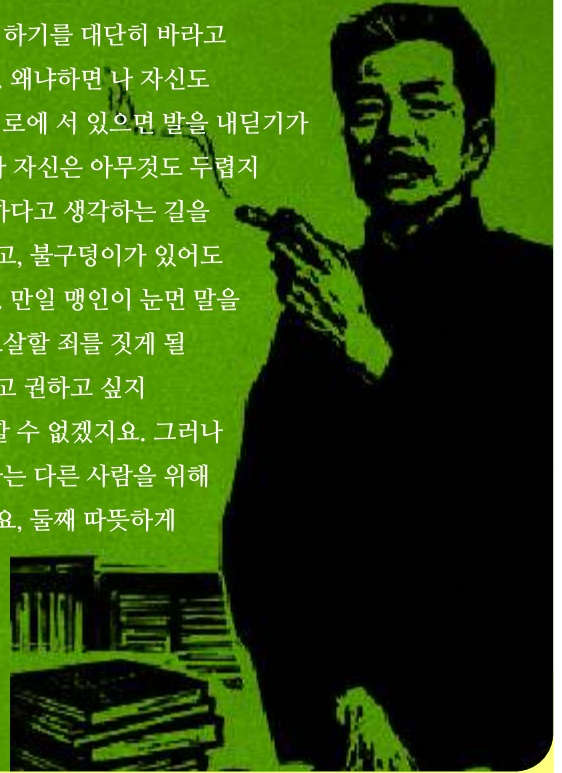
THE GREAT CHARGES: "MARCH FOR LA PAIX"



태랑이의 파종

만일 나에게 그런 힘이 있다면 나는 당연히 하남의 청년들에게 무언가 기여하기를 대단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힘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기로에-혹은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말하면 네거리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로에서 있으면 발을 내딛기가 거의 어려울 것이며, 네거리에서 있으면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습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은 나 자신의 것이니까 나는 큰 걸음으로 스스로 걸어갈 만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설령 앞에 심연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협곡이 있고, 불구덩이가 있어도 내 스스로 짊어지면 됩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에게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일 맹인이 눈먼 말을 타는 격으로 위험한 길로 인도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여러 사람의 목숨을 모살할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끝내 여전히 청년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가자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처지가 서로 다르고, 사상의 귀착점도 아마 일치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만일 나에게 청년들이 반드시 어떤 목표를 향해야 하는가를 꼭 묻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 마련해 놓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첫째 생존하는 것이요, 둘째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것이요, 셋째 발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감히 이 세 가지를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라도 우리는 그에게 반항하고 그를 잡아 없애야 합니다!

(『화개집』, 「북경통신」 중에서)



너는 할 수 있다, 모든 원하는 걸 하면 꿈은 언젠가 이루어진다,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공허한 말들. 위안도 안 되는, 아무 힘도 없는 이런 말들 보다 생존을 이야기하는 루쉰의 말이 더 가슴에 와 닿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살길을 찾는 것, 비겁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일이다. 자기 앞에 심연, 가시밭길, 협곡, 불구덩이가 있어도 스스로 짊어지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이에게는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환상이 없다. 그는 스스로 걸어갈 만하고, 걸어가고자 하는 길로 걸어갈 뿐이다. 그렇게 생존하는 것이 그에게 목표다. 살아 있는 동안 그는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 것이다. 그는 관념 속에서 메아리치는 말들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권하거나 계도하려 들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말과 글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스스로 끊임없이 경계할 뿐이다.

이달의 선물



해강 인도차

인도 여행을 다녀온 채운샘 조카~
규문에 인도차를 선물함.
잘 마실게 ~^^



혜경샘 고추장아찌

몹시도 바쁜 와중에 담가주신
새콤상큼한 장아찌



인문서당 강원 실세 현미선
방문을 틈 타 강원 샘들께서 주신
카드로 산 쌀 20kg와 설탕수박

현미만 먹는 고급 입에 하이안 백미를 섞어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나게 달고 맛난 수박.
벌써 다 먹어버렸다는~~



은남샘 짬뽕이 토마토, 그리고 나물과 빈대떡

일이면 일, 살림이면 살림, 공부면 공부.
모두 열심이신 열혈 학인 은남샘의 은총으로
언제나 맛난 과일과 반찬들을 먹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후진 별다방 커피

쓰디쓴 커피를 마시면
너를 생각한다! 응!